

96 애틀랜타 올림픽 출전 D-23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영광의 순간을 향한 올림픽불자선수들의 간절한 발원이 6월26일 저녁 태릉선수촌 한마음법당 출전결의법회에서 펼쳐나왔다.

“땀으로 뿌린 씨앗 금메달 결실을”

26일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애틀랜타 출전결의법회

70여 불자태극전사 올림픽 필승다짐 ‘합장’

수 1만여명이 출전, 저마다 갈고닦은 기량을 쏟아내게 된다. 한국선수도 3백80여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이 중 70여명이 부처님 앞에서 메달획득의 결의를 다지고자 한마음 법당에 모였다.

자이언철선수의 말이다.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 리스트에 오른 다수의 선수들이 한마음 법당에서 신심을 함께 쌓은 불자선수들이란 점은 더욱 이채롭다.

바르셀로나 금메달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예상 금메달 0순위로 꼽히는 역도 66kg급의 전병관선수도 자타가 공인하는 불자선수. 여기에 체조의 여흥철선수도 공중에서 두바퀴 반을 도는 쿠에르보라는 신기술구사로 한국 체조선수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 리스트에 오른 다수의 선수들이 한마음 법당에서 신심을 함께 쌓은 불자선수들이란 점은 더욱 이채롭다.

모두 함께 모여 ‘화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의 우렁찬 목소리에서 금메달의 낭보가 벌써 가까이에 와 있는 듯했다.

이은자 기자



애틀랜타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의 불자선수들이 필승을 다지는 법회를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만 한 영화 비온드 랭군

80년대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시위와 진압이란 적대적 관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타(利他)를 배우고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비온드 랭군'이 오는 7월6일 호암아트홀에서 개봉된다.



‘비온드 랭군’의 한 장면.

'비온드 랭군'은 1988년 네 윈 군사정권에 맞선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그해 9월의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혔던 미얀마의 정치적 격동기에 관광객 로라 보어만이 겪은 내면의 변화, '이타'를 섬세

이타주의로 이룬 미얀마 민주화과정

하고 스케일이 큰 영상으로 풀어낸 수작이다. 패트리샤 아케트가 분한 미국 여의사 로리는 얼마전 아들과 남편이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관광길에 나선 로리는 랭군시에 있는 한 호텔

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리는 관광안내원 아웅코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계기로 미얀마의 비극을 바라보는 이방인에서 벗어나 이타행위를 몸소 실천하며 고통스런 자아를 잊은 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여성으로 변화해 간다. 또한 서정성 깃든 영상상을 통해 미얀마의 고요와 평온을 보여주고 있다.

btn·BBS 어린이 여름캠프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어린이포교를 위한 여름캠프를 각각 실시한다. 불교방송은 오는 16일부터 17일 1박2일간 사찰유치원생을 대상으로한 BBS 이기코끼리 캠프를 청령포립후랜드리 캠프장에서 개최한다. (02)705-5301

불교TV도 오는 23일~25일 2박3일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 제3회 연꽃어린이여름캠프를 청령포립후랜드리 캠프장에서 열 예정이다. 특히 연꽃어린이 여름캠프는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불교TV가 주최가 되어 준비한다.

해군사관생도·장교 165명 수계

삼광사·해군호국사 “군불교 중흥 앞장” 서약

천태종 부산삼광사(주지 춘광)와 해군사관학교 해군 호국사(법사 정인호)는 지난 6월19일 사관생도와 초급장교가족 호국사신도 삼광사신도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입관 축하법회와 1백65명의 사관후보생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거행찬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날 수계식에서 계사인 춘광스님은 연비를 하고 계첩을 수여한 뒤 “부처님의 진리에 몸담아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호국실천이 곧 수행이다”며 “법발을 널리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 선봉장이 되라”고 말했다. 이어

수계자를 대표하여 김창준소위는 “화랑정신을 근간으로 한 불교정신으로 군불교중흥에 앞장 서겠다”고 서약했다. 수계식에 이어 삼광사 신도회 주최로 열린 다과회에서는 해군호국사 신도회가 계사인 춘광스님에게 대형 거북선을 선물하고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찬불가공연 등 우의를 돈독히 하는 불자 한마음이 펼쳐졌다. 삼광사는 12년전부터 호국사와 매년 수계법회를 봉행하여 2천여명의 해군초급장교들에게 수계하는 성과를 거두 군불교의 고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승부떠난 승·속 한마음잔치”

해인사스님 對 연예인올스타팀 친선축구대회

“해인 화이팅! 월드컵 코리아!” 지난 6월23일 해인사총림 대운동장에서 열린 해인사축구단 대 연예인올스타팀간의 친선경기는 시작전부터 열띤 응원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경기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축구열기 고조를 위해 마련된 것. 특히 해인사로서는 2002년이 신년 개산 천2백주년인 되는 의미깊은 성사를 반영한 것으로 세계최초의 스님축구구단과

의 경기라는 이색소재 탓인지 일본의 NHK와 홍콩의 스타TV도 취재에 열을 올렸다. 해인사구단은 약30여년전 주지 영암스님의 원력아래 빈발하던 산불을 막기위한 체력단련의 방편으로 조직된 팀. 해인림에는 감동적 주상 현조스님을 비롯 수진 각안 범진 등

가야산의 청정예술로 담금질된 11인의 철각들이 포진했다. 이에 맞서는 연예인팀에는 주장 김홍국씨를 비롯 달린트 이병철 선수재대 박준규 이승민 가수 현당 정관태 이창 박일서(도시의 아이들) 등이 포진했다. 연예인팀은 막강한 해인팀에 맞서고 홍보의 극적효과도 노릴겸 외국인구단 4명을 긴급 배치했다. 경기 3일전에 전국가대표 최순호, 김중부, 박경

훈, 제정구씨가 섭외된 것. 휴일을 맞아 대가림사 열린 이색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2천여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 역전을 거듭하던 경기는 8대6이라는 골폭차를 기록하며 해인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경기가 끝난후 현조스님은 “심산단련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으며 김홍국씨는 “승부를 떠나서 모두 한마음으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의미깊은 경기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시작전 연예인팀은 방장 해인스님의 친견 및 월드컵 성공기회를 염원하는 법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축구사랑모임대표 김홍국씨 등 2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해인사축구단 대 연예인올스타팀이 해인사 축구장에서 월드컵유치기념 친선경기를 벌였다.

포교일선에서는 군대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하고, 군대내에서의 군승을 끝장 그물에 비유한다. 이는 군포교에 있어 군승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러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군포교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조계종에서는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군승의 증원과 군승후보요원 대상의 대폭확대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군포교의 발판구축은 물론 군불교 활성화

의 일대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군승후보요원을 제대로 양성, 관리하지 못해 법사 미파견부대가 속출하는가 하면, 군승지원이자 95년 18명에 비해 96년에

군내 종교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언어선 성과물인 점에서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번 일로 종단은 빈수레가 요란한 모양이 되어버렸고, 위신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생

군승지원자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군불교진흥회 및 군포교 일선에 있는 군승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군승지원자를 확보하자면 ‘현대관 비승비승’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군승에 대한 위상정립과 그에 따른 대우 및 현실적인 군부대 예산확정등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원이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대책을 세워 포교의 황금어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목탁 소리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는 13명으로 현격히 줄어들어 향후 5년까지 80여명을 증원키로 한 군승후보요원의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군승의 80여명 증원은 불교계가 국방부에 종교간 협력성 및

군포교 ‘빈수레’

및 출신자, 동국대출신 학사 학위 취득 스님에게만 한정돼 있는 군승지원자격에 한계가 있지만 군승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지원이 없는한 군내 불교계 위상정립과

생활속의 불교 79

삶은 그대의 원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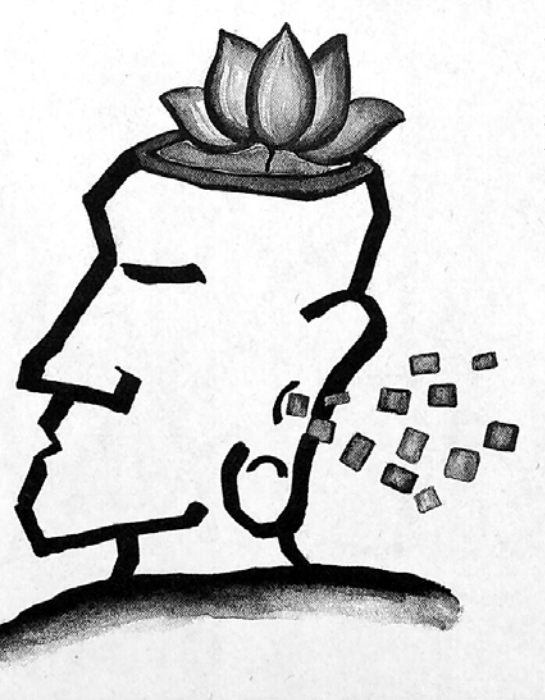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콩을 원한다면 콩씨를 심어야 하고 팥을 거두고자 한다면 팥씨를 심어야 한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콩을 수확하려 하면서 팥씨를 뿌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뿌린 그대로 스스로 거두고, 행한 그대로 스스로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법칙 중에도 예외가 없는 법칙-철칙이다.

인류의 승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칙을 삶의 지표로 삼도록 간곡히 권유한다. ‘그대가 그 무엇을 원하거든 씨를 뿌려라.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인과의 법칙엔 탈끝만큼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고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 행한 그대로, 뿌린 그대로 우리 앞에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가 오고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이 찾아 온다는 것이다. 내가 행하고 내가 먹는 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런가. 나는 분명히 성취와 기쁨을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과는 좌절과 슬픔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던가? 그러나 그 법칙에도 예외가 있는 게 아닌가?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달라’던 마이더스 왕은 그 소원이 성취됨으로 해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그의 세 끼 음식까지도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더스의 경우에도 법칙은 엄연히 살아 있었다. ‘손길 닿는 것마다...’ 하고 원한 것이 씨앗이고 ‘황금으로 변한 것’이 결과라면 다시 황금이 새로운 씨앗이 되고 죽음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인과의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삶은 상대적이다. 혼자서 뿌리고 혼자서 거두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과의 법칙은 얽히고 설켜 고차원의 방정식과 같다. 혹은 촘촘히 짜여진 그물 같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씨앗과 결과간의 상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한



것이다. 내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혹은 취미·레저라는 명목으로 살생을 한다고 하자. 나는 분명 배고픔을 해결했고 여가를 즐겼으니 행한 대로 원한 대로 뿌리고 거두었다. 그러나 인과의 고리는 거기서 종결될 게 아니다. 나의 즐거움이 상대의 아픔·괴로움으로 이어졌으니 그 아픔과 괴로움의 과보도 내가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예외 없는 법칙의 생동감이다.

살생뿐 아니라 탐욕·어리석음·성냄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욕망 충족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일으킨 파장은 하나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 어느 때 어떤 형태로든 내게 결과로 되돌아 온다.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결과도 복잡다양하게 찾아 온다. 더구나 우리 스스로 뿌리는 씨앗은 또 얼마나 복잡다양하던가. 찰나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끊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것들이 날마다 씨앗이 되어 결과를 몰고 오게 되어 있으니 뿌리고 거두는 일은 자연스럽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얽히고 설켜

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에 예외가 있는 듯이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

탐욕·성냄·어리석음 따위는 비유하자면 햇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다. 탐욕의 과보가 내 몸을 불 태우고 성냄·어리석음의 과보가 내게 큰 고통을 몰고 온다는 경계이다. 따라서 기쁨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싶거든 바람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듯, 삼도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슬픔·괴로움·어둠을 몰아내고 밝음·기쁨을 맞아 들이는 일이 된다. 기쁨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거든 불법을 실천하라. 삶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협찬: 백승우·김희주